

나주시 금남동지사협, 어르신들과 10월의 멋진 나들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20여 명과 함께 '가을의 멋진 날' 만끽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화영·민간위원장 허현숙, 이하 금남동지사협)는 지역 특화사업 일환으로 지난 21일 안도수목원 등 안도군 일원에서 어르신 나들이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 행사는 매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올해는 2025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함께한 강모 어르신(74세)은 "멋진 여정인 만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생전 처음 탄 모노레일과 해수 족욕, 안도수목원 관광은 너무나 즐거워 언제까지나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해 준 금남동지사협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연거푸 인사를 전했다.

허현숙 민간위원장은 "매년 어르신, 장애인 가족들과 나들이를 함께하는 하루길 여행이지만 함께한 분들이 웃고 즐기며 매년 감사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금남동지사협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과 보람이 함께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김화영 금남동장은 "이번 나들이는 평소 관광 기회가 적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나들이 동행 사업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행 지원과 말뚝이 되어 주신 허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지사협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지난 21일 안도수목원 등 안도군 일원에서 어르신나들이 동행 행사를 했다.

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 발굴과 따뜻한 복지공동체 금남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간의 날' 간암 예방 홍보부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사회 간염-간암 예방 인식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0월 20일(월) '간의 날' 맞아 '장성 활동강 가을꽃 축제장'에서 간암에 대한 예방 수칙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예방센터 및 장성군 보건소와 협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간염과 간암의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간암 바로알기' 이벤트, B·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안내, 'The 건강보험'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소개, 손씻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각 기관에서 준비한 건강 관련 홍보물을 전달하여 방문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전국에서 간암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간암 예방을 위한 「간암-알리오(ALIO)」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국가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자를 대상으로 확진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영희 본부장은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조기관리와 건강검진 등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지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간암 예방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로 지역건강증진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원 기자

강진군 작천면 지사협, 이·미용 봉사 '작천살롱' 개소

교통불편·경제적 부담 해소 청년회·여성단체와 협력 매월 정기 봉사

강진군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오정숙, 민간위원장 정향채)가 지난 22일 작천면사무소 유휴공간에 미용실 '작천살롱'을 개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미용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작천면에 미용실이 없어 헤어스타일 관리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복지요구를 반영해 기획했다.

작천면 공공미용실인 '작천살롱'은 교통 불편 및 경제적 부담으로 타 읍면의 미용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1회·일 3시간씩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마을 이장 및 협의체 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참여가 가능하며, 회당 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은 커트와 염색으로, 커트 봉사는 청년회, 염색은 여성단체, 어르신 이동 도우미 역할은 이장단이 각각 담당한다. 아울러 작천면은 이·미용 공간을 제공하고 작천면지역사회협의체는 각종 재료비 등을 부담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청년회·여성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첫 봉사를 진행했다.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손질받은 어르신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니 마음까지 활해지는 것 같고, 이발을 하면서 면사무소 행정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향채 민간위원장은 "작천살롱은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마음을 나누는 작은 사랑방 같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숙 공공위원장은 "청년회와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작천살롱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생활지원사와 손잡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나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생활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지프로그램 추진

담양군 치매안심센터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85명과 협력해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지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생활지원사들이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1,36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활동 여부, 치매약 복용, 배회 경험, 동거 형태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인지저하 징후가 있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조기에 발

굴했다.

조사 결과는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인지프로그램, 사례관리 서비스와 즉시 연계되며, 생활지원사가 현장에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인지선별검사와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2일 담양향촌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생활지원사 치매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인지선별검사와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지원사들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량을 높여,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조기 지원과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지방우정청, 섬마을 소외이웃에 따뜻한 나눔 실천

완도 섬지역 3곳 선정해 소외이웃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직무대리 김기홍)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완도군 소재 도서지역 3곳을 선정하여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서지역의 접근성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획되었으며, 그 중 금당도와 생일도는 전남 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후원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한 이

불 외에 식료품, 물티슈 등 약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하여 독거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등 섬마을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김기홍 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 살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상생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섬진강기차마을